

스즈짱 드롭킥! 5화 -한국어

무관중의 블라인드 매치. 헬즈플레어의 간부 마리아를 상대로 스즈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퍼어억!

“부헛!!”

마리아의 백스핀 엘보에 안면을 직격당한 스즈가 타액을 흘뿌리면서 매트 위를 구른다.

‘어째서...!’

눈 앞의 상대를 두고 스즈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아리사토의 얼굴을 한 적의 간부.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기술마저도 마치 카피한듯 아리사토의 기술을 빼닮아 있었다.

“어째서...아리사토 선배의 모습을...어째서입니까!”

“곧 죽을 녀석이 그걸 알아서 어쩔셈이지?”

마리아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스즈를 응시하지만 스즈도 지지않겠다는 듯 마리아를 노려보며 추궁한다.

“얼마 전 이토야마 선수를 습격한건 당신이군요! 선배의 얼굴로 그런 심한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어째서 선수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지독한 짓까지 한겁니까!”

“조직의 철칙에 따라 방해되는건 모두 배제한다. 그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하다는거지? 그런 정의의 히로인 께선 어떤 내막이 있어서 우릴 방해하는거지?”

“내막이라니... 그런 건 없어요! 전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을뿐이에요!”

“흥, 정의감뿐이라고? 네 선배한테 좀 더 제대된 이야기는 듣지 못했나보지?”

스즈가 정곡을 찔린 듯 머뭇머뭇하는 사이 마리아가 다시 입을 연다.

“한 때 이게 프로레슬링 단체의 정점에 있던 이 헬즈플레어. 하지만 그것도 이젠 옛말. 대부분의 스폰서를 잃고 이젠 영락해버린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선 자금을 변통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하게 됐지. 스너프 필름이라고 들어봤으려나?”

스즈로썬 처음 들어보는 용어.

“고문, 신체훼손, 살인 등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영상물의 총칭이지. 거대한 스너프필름 시장의 구축. 이 나라의 프로레슬링은 우리 헬즈플레어의 부흥을 위해 살육쇼라는 엔터테인먼트로써 다시 태어나는거야.”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강한 악의를 가진 상대에게 경악해 스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굳어진다.

“그런걸...! 사람들이 납득할리 없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넌 눈앞의 일부터 걱정하는게 좋을텐데!”

퍽!

“우음!!”

마리아의 니키키 스즈의 옆구리에 꽂힌다. 격한 통증에 주춤한 사이 마리아가 상체를 붙잡아 그래플링을 시도하려는 것을 간신히 뿌리쳐낸다. 눈 앞의 상대가 선배와 어떤 관계인지, 의문은 아직 산만큼 쌓여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따윈 없었다.

‘크윳...지금은 눈 앞의 싸움에 집중하지 않으면...하지만 이 상황...!’

“눈치 챈 모양이지만 이미 늦었어!”

스즈는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느끼고 있던 위화감의 정체를 깨닫는다. 마리아는 의도적으로 링 중앙에서의 싸움을 유도하며 명백하게 스즈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다. 신장 158cm의 작은 체구. 신체적 한계에 따른 파워 부족을 공중기로 커버치는 편향된 기술들. 그건 다시 말해 로프와 링포스트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 전력이 크게 반감된다는 뜻이었다.

‘상대는 내가 그래플링에 약하다는 것까지 이미 간파하고 있어. 소모전을 계속해도 불리한 건 이쪽. 승부를 걸 수 밖에...!’

스즈가 상체 중량을 노린 미들킥을 날린다. 하지만 그건 웨이크, 마리아가 자신의 상체를 노리고 들어온 다리를 붙잡힌 순간 스즈가 몸을 날려 후두부를 노린 연수베기를 내지른다.



“하앗!!”

“흥, 뻔한 수작을...!”

예상했다는 듯이 팔꿈치를 이용해 기술을 빗겨가게 한 마리아가 허공을 가른 다리를 붙잡고는 스즈를 매트 위에 낙하시킨다.

“크윳! 아차...!”

다리를 붙잡혀 무너진 자세로 엉덩방아를 찧은 스즈가 서둘러 탈출해보려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다리 선택지가 없었다곤해도 쉽게 다리를 내주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멍청하군. 이대로 다리를 박살내면 자랑하던 킥도 공중기도 쓸 수 없을테지.”

링 중앙에서 걸려버린 4자 굳히기. 로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관절기에서 벗어나려 할때마다 마리아가 방향을 틀며 스즈의 다리를 더더욱 압박한다.

“크윽...!! 아아아앗!!”

“하나 묻지. 너에게 천사의 힘을 준건 누구지? 네 선배인가?”

“몰라! 난 그런거...!”

“흥!”

어떤 연유에선가 기술을 푸는 마리아.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면했다지만 그렇다하여도 절망적인 상황. 마리아가 기어서 로프로 도망가려는 스즈의 머리채를 잡아올려 세우고는 한쪽다리위 상체를 붙잡는다.



쿠윽!

“구후에엿...!!”

피셔맨 수플렉스! 스즈의 시야가 뒤집히더니 매트에 등이 매다꽂히는 굉음과 함께 척추가 분리되는 듯한 고통이 동반한다. 마리아 브릿지를 해제해 그로기가 된 스즈를 정면에서 들어올린다.



“아아아악!!”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지. 내 밑으로 들어와라.”

“뭐...라고요?”

“지금 헬즈플레이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나에겐 한명이라도 많은 전력이 필요해. 날 따라오면 널 인간계는 물론 이계에서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레슬러로 만들어주지.”

“콧... 허튼 소리 하지마세요! 전 당신 같은 악당을 따를 생각 따위...!”

“흥, 정의의 히로인인양 행세하고 있지만 보면 알아. 네 목적은 그 선배겠지? 만나게 해주지, 네 선배와.”

‘아리사토...선배!’

이 싸움에 참여한 이래로 스즈는 언제나 아리사토 선배를 갈구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프로 레슬러로써 길을 알려준 사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온 것도 전부 선배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육쇼라니. 그걸 듣고 그냥 방관하기엔 스즈는 아직 순수했다.

“당신들의 악의를 알고 그냥 지나칠 정도로...! 전 비정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우드득! 우드득!

“구핏!! 아아악...그하아아앗!!”

“너에게 더 이상 용무는 없어...죽어.”

‘안돼...! 선배...!’

마음 속으로 선배를 외치면서 스즈는 혼탁해지는 의식 속에 정신을 잃는다. 그 직후였다.

“거기까지 해주시겠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면 어느샌가 링 바깥에서 시스터에빌이 입술을 비죽이고 있다. 그 기분나쁜 미소에 마

리아의 미간이 좁아진다.

“이제 곧이니 방해말고 사라져주시겠습니까?”

“후후, 그렇게 안되겠는걸요, 마리아씨. 방금 전 천사의 신변을 넘겨달라는 스폰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손을 거둬주시겠어요?”

“스폰서라고? 그 돼지말입니까? 왜 제가 인간따윈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거죠?”

“어머, 얼마 전까지 인간이었던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마리아씨. 그건 그렇다쳐도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은 곧 재단의 의사와 같다는걸. 잊은건 아니시겠죠?”

잠시동안 시스터를 노려보던 마리아가 실신한 스즈를 던져놓고 링에 내려온다.

“언제까지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후후, 좋으실대로.”

미증유의 강적을 만나 또 한번의 패배를 맞이한 스즈. 한편, 링의 구석에서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그림자가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리아님.”

“당신입니까. 고작 저 정도의 상대로 애를 먹다니. 친위대도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군요.”

레드웍을 질타하는 듯한 무심한 시선에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채 분한 듯 이를 악문다.

‘큭...! 마리아 선배 어찌된겁니까! 어째서, 파이터엔젤 따위에게...!’

지금의 단체를 위해 마리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단체를 적대하고 나아가 자신의 프라이드를 상처 입힌 상대를 회유하려한 것에 레드웍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마리아의 그림자가 링에서 사라지자 친위대원 중 한명인 파프리카가 쭈뼛쭈뼛 나타나 한마디 거든다.

“역시 마리아님께서 친위대도 찢찢매던 그 파이터엔젤을 장난감 다루듯... 히에엏...!”

파프리카의 눈치없는 한마디에 레드웍이 분에 못 이겨 발치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파프리카가 잔뜩 쭈어서 움츠러든다.

(파이터엔젤... 너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짓밟아주겠어...!)